

별관 인위적 변형 보단 원형 보존 위해

현장과 시각

검찰 편중인사 유감



최 경 호

사회1부 기자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은 비단 호남 출신 법조인들만의 심경이 아니다. 영남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시·도 대부분에서 인사의 부당성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편중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검찰 내 요직 '빅4'를 비롯,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TK(대구·경북)와 고려대 출신들이 '썩솔이'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안통'의 악진도 두드러졌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를 'KKK(TK·고려대·공안)의 집권'으로 깎아내리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52명 가운데 TK 출신은 14명으로 늘어났다. PK(부산·경남) 출신 9명까지 포함할 경우 영남권 인사는 23명에 달한다. 영남 출신이 전체 검찰 고위직의 44.2%를 독식한 것이다.

반면 광주·전남 출신 인사는 7명에 그쳤다. 전북(3명)과 제주(1명) 등을 모두 합쳐도 11명으로, 영남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충청(4명)과 강원(1명) 등도 이번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검찰의 인사 편중은 집적인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6월 말 전 전 총장 후보 인선 후 명동성 법무연구원장 등 4명의 검찰 핵심 인사가 줄줄이 웃을 벗었다.

그러나 이 자리들을 불과 한 달 뒤 영남권과 수도권 출신 인사들로 고스란히 채워졌다. 심지어 고검장급 승진자 9명 가운데 호남 인맥은 광주 출신의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나마 황 차관 역시 지역 안배 차원에서 무척이나 고심한 끝에 자리를 내줬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물론 특정 지역 및 학교 출신들을 편취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사의 특성상 주요 보직이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릴 경우 그만큼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새겨둬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와 상생을 이뤄갈 때 비로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나 경제의 균형 발전 논리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는 또 국민 대부분이 바라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상생과 조화가 곧 민의(民意)란 얘기다.

중국의 오경(五經)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가정맹호(苟政猛虎)'란 말이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의미다. 공자(孔子)는 이 책에서 가장 가혹한 정치로 정치인들의 수탈을 꼽았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져가는 정부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법. 이번 검찰 인사 케이스는 물론, 항상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choice@kwangju.co.kr

설문내용

1. 선생님께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이 어떤 건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①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르다 ④ 무응답

2. 선생님께서 옛 전남도청 별관을 둘러싼 “보존이나 철거냐”/“철거냐 보존이나”(교차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③ 거의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⑤ 무응답

3. 금남로 분수대에서 볼 때 마주보이는 옛 전남도청 건물의 왼쪽은 본관, 오른쪽은 별관입니다. 선생님께서 옛 전남도청 별관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철거해야 한다 ② 보존해야 한다 ③ 모름/무응답 * ①, ②는 교차 질문

3-1. (문항 3에서 ① 무응답한 사람에게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의견이신지요?

① 철거해야 한다 ② 보존해야 한다 ③ 모름/무응답 * ①, ②는 교차 질문

4. (문항 3에서 ① ‘철거해야 한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옛 도청 별관을 철거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적어서 ② 별관 대신 5·18 상징 조형물을 세우는 방안이 더 나아서 ③ 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④ 기타 ⑤ 모름/무응답

5. (문항 3에서 ② ‘보존해야 한다’ 응답자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 방식으로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② 3분의 1을 보존해야 한다 ③ 별관 건물의 가운데를 뚫어 소위 5월의 문이라고 불리는 통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④ 기타 ⑤ 모름/무응답

6. 선생님께서 옛 도청 별관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과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자는 주장 중 어느 쪽을 더 지지하십니까?

①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 ②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③ 모름/무응답

■ ‘도청 별관’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

‘5월의 문’ ‘3분의1 존치’안은 부정적

386·진보층·광산구 보존 의견 높아

‘보존’과 ‘철거’ 논란으로 1년 넘게 지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불러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철거’보다는 ‘보존’을 원했다.

특히 보존에 있어서도 전남도청 건물을 훼손하게 되는 ‘게이트’나 ‘3분의1 존치’보다는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광주시민들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별관 문제 알고 있나=광주시민들은 도청별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

았다. 10명중 8명은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 별관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으며 7명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쟁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도청 별관이 어떤 건물인지에 대해 시민 81.8%(정확하게 41.6%, 대략 50.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17.6%였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화이트칼라·진보 성향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도청 별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에 대한 쟁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71.8%나 됐다. 이 중 남성(77.4%)과 40대(81.7%)·50대(83.1%), 서구 거주자(78.6%), 자영업(80.7%), 화이

트칼라(85.1%), 월 가구소득 401만원 이상(84.5%), 진보적 이념성향자(79.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33.3%)과 19~29세(41.5%), 60대 이상(36.5%), 학생(42.7%), 월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36.0%) 등에서 높았다.

◇도청 별관 어떻게=10명 중 6명 이상이 ‘보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철거해야 한다’(32.3%)는 의견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80.2%) 등 연령이 낮고 진보 성향(69.6%) 등에서 높았고, 반면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35.5%), 50대(49.3%)·60대 이상(46.8%), 자영업(39.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광산구가 67.6%로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남구(62.3%), 북구(61.5%), 서구(61.0%), 동구(52.0%) 순이었다.

‘보존’을 주장한 응답자 중 보존 방식에 대해서는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별관 건물

의 가운데를 뚫어 소위 5월의 문이라고 불리는 통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 ‘3분의 1을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낮게 조사됐다.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철거 이유를 ‘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48.3%), ‘별관 대신 5·18 상징 조형물을 세우는 방안이 더 나아서’(32.1%), ‘보존할 가치가 적어서’(10.5%) 순으로 답변했다.

◇도청 별관 처리 시기는=1년동안 지체된 점을 고려해 시민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62.0%)을 제시했다. 서두르자는 응답은 남성(67.8%), 50대(78.6%)·60대 이상(70.8%), 자영업(74.3%), 도청 별관 철거 주장자(86.7%) 등에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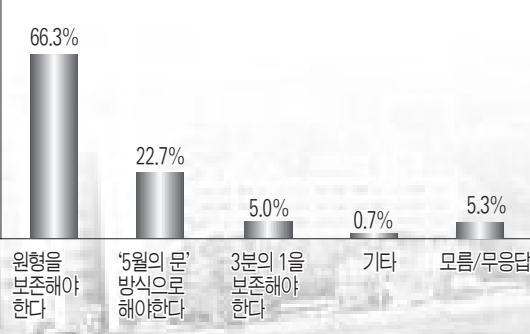
반면 대형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주장도 34.0%에 달했다. 이 의견은 학생(60.0%) 등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55.8%), 도청 별관 보존 주장자(4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옛 전남도청 별관 처리 시기



■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방식



■ 여론조사 배경은

광주일보사 등 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옛 전남도청 별관 관련 공동 여론조사는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6월24일 5·18단체의 농성으로 촉발된 도청 별관 철거 논란은 정부와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 간 반목과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불러왔다.

8개 언론사 “지역 갈등·반목 더 이상 안돼”

정부와 5월 단체는 도청 별관 논란의 직접 당사자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대립을 거듭했고, 시민·사회단체도 양 갈래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제3의 안’을 들고 나오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다. 여기에 박광대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

원들 또한 이들을 중재하겠다는 뛰어들이었지만 선출직의 한계를 드러내는 바람에 도청 별관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려 졌다. 이에 지역언론사들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광주시민들에게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의 해법’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매일,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등 광주지역 8개 언론사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지역 현안에 대해 광주지역 주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50%~80% 「사람세상」 발행

조슬림!!

각판 50만원~

귀하의 몸무게와 인격을 보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 010-873-5858, 070-422-1111

문의처 / 011-6010-9955

미용기능장 전문 직업사관

귀하의 몸무게와 인격을 보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 010-873-5858, 070-422-1111

문의처 / 011-6010-9955

사람에게 힘을 주는 유익한 그림(치능,건강 등)

힘이 생길때 시장 오를때도 오고 파는때도 오고 마시며 즐기는 그림과 감상하세요

분체책서화

裝體葛書齋

작가 안중선

NAVER